

‘호남 반도체’ 인프라 예타 면제… 재정 지원도 날개

전력 6.3GW·용수 하루 65만t 공급망 조기 구축
팹·소부장·인력 양성 6조원 지원도 조건부 통과
2028년 착공·2029년 팹 2기 완공·2030년 첫 양산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전력·용수 공급과 6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라는 핵심 관문을 한 번에 넘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팹 4기의 기반시설과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공언한 ‘전격전’이 구상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게 됐다. ▶관련기사 8·19면

25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용수 공급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원안 의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 신설을 뒷받침할 6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 사업도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예타 면제를 받았다.

팹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투입할 재정지원이 함께 신속 추진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번 의결로 광주 군공항 일원 826만㎡에 조성할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의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전력과 용수 문제가 국가

자원의 집행사업으로 전환됐다.

예타와 일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기반시설 공사를 팹 건설 일정에 맞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산단과 팹 4기, 협력업체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6.3GW에 달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kV 송전선로에서 전력을 분기해 광주 군공항 부지까지 약 20~25km의 공급선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구축할 1단계 전력망을 통해 약 4GW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산단과 직접 연결되는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추가 건설해 전체 전력 수요를 충족한다. 원전과 전남지역 재생에너지를 기본 전원으로 활용하면서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핵화연원 가스 열병합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보완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 공급망 구축도 속도를 내게 됐다. 국무회의 의결 대상에는 동북댐 증고와 광역상수도 연결관로 신설·확충 등 산단 용수 기반시설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1단계로 동북댐과 주암댐 수계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고속철도 통합 관련 보고가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를 연계해 하루 35만t을 공급하고, 2단계로 광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나주댐 등을 통해 하루 30만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장흥댐과 보성강댐 등 주변 수계도 연계해 가뭄이나 수질 변화에 대비한 예비 공급망을 마련한다.

반도체 공업용수 확보로 농업용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

진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나주호 수해 구역 말단부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예타 면제안도 통과했다.

나주호 용수 일부를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더라도 농민들이 사용하는 물은 별도 수원에서 확보해 농업용수 부족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생활·농업·공업용수 간 갈등을 기반시설 구축 단계부터 줄이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6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단순한 팹 생산단지가 아닌 전·후방 산업이 집적된 국가 생산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투입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출연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 확충과 소부장 기업 유치, 연

구개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예타 면제는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10~11월 확정’

금감원·금융위·예금보험공사 등 350여곳 검토
혁신도시 이전 원칙 지방정부·노조 의견 수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시기가 오는 10월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25일 정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 전체가 일괄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동조합 의견도 들어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논의는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있다.

김 장관도 앞서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진류 제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은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를 맡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노조가 이전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한낮 35도 ‘불볕더위’… 열대야 지속

전남광주 내일 최대 50mm 비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과 높은 수증기 유입으로 26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구례 산간과 완도 여서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남광주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33~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일부 지역은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도 이어질 것이다.

27일에는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

예상 강수량은 5~50mm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실손보험사기 집중신고 기간

2026. 1. 12. (월) ~ 10. 31. (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병원관계자 5,000만원 · 브로커 3,000만원 · 환자 1,000만원

보험사기 유안·알선 권유 행위

미용 성형수술 후 허위청구 행위

진료비 영수증 조끼기 행위

허위 입원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